

건강 상담실

▷ 이번호의 해답자
손 중 하 서울적십자병원 일반외과과장

상처 2, 3日內 나면
파상풍 안걸리나

문 상처가 났을 때 2, 3 일내로 그 상처가 아물면 파상풍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요?

상처가 나면 페니실린을 먹어두면 좋습니까?
<전북이리시 이형전>

꺼져들어 두면 피부,
저절로 再生

답 상처가 났을 때 페니실린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상처가 별로 크지 않으면 소독제로 빨리 세척하고 꺼-즈를 덮어두면 항상제를 먹을 필요없이 생리현상으로 피부세포가 재생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크고 깊

다면가하면 오물감염이 생기므로 봉합. 세척을 하고 농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2, 3일 사이에 상처가 아물면 오염이 덜 되었거나 파상풍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상풍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는 그때 그때의 상처를 직접 보아야 되므로 여기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는 테트라 싸이 크린제제가 좋습니다.

예방약으로 파상풍 예방주사등이 있으나 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손 중 하>

것이 판명되어 다시 명랑한 학교생활을 계속하였지만 피내반응은 가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간흡충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몹쓸 기생충이기는 할망정 우리 간흡충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고자하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피내반응이나 때변걸사를 해

서 감염여부를 판정내리는 선생님 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시어 우리 간흡충으로 하여금 공연한 욕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흡충을 없애는 약은 앞서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 개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않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부교수·의박>